

‘HBM 특수’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 ‘깜짝 실적’

매출 86조, 역대 분기 최대치
HBM 수요·폴드7 흥행 겹쳐
추가도 사상 최고가 근접 ‘화답’
임직원에 추가연동 보상 신설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량 확대 등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2025년 3분기 매출 86조원, 영업이익 12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발표했다. 각각 전년동기 대비 8.72%, 31.8% 증가한 것이다.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인 10조원을 20% 이상 뛰어넘은 것이다. <관련기사 3면>

12조원 영업이익은 2022년 2분기 14조1000억원 이후 가장 높은 영업이익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2018년 3분기 17조5700억원이었다. 매출 86조원은 역대 분기 최대 수치이며 80조를 넘어선 것도 최초이다. 과거 최대 매출은 2024년 3분기에 기록한 79조1000억원이었다.

삼성전자가 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D램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과 갤럭시 폴드7 판매 증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분기 들어 범용 D램인 DDR4가 DD



삼성전자가 2025년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14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R5 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주요 메모리 제조사들이 서버용 고성능 D램 생산능력(캐파) 확대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9월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 1Gx8)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달보다 10.5% 오른 6.3달러로 집계됐다. DDR4 평균 고정거래가격이 6달러를 넘어선 건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면서 주가는 한때 9만6000원까지 상승하며 2021년 1월 11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9만6800원)에도 바짝 다가섰다.

한편 삼성전자는 ‘깜짝 실적’ 발표에 이어 임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연동 주식보장 제도를 시행,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향후 3년간 주가 상승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Performance Stock Units)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PSU는 단기 실적에 따른 초과이익성 과금(OPI)과 달리 회사의 미래 성과와 연동해 보상이 이뤄지는 선진형 보상제도다.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지급되는 보상 규모가 커지는 구조로, 임직원이 회사의 장기 성장성과 기업가치 제고에 직접적인 동기를 갖도록 설계됐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CL 1~2 직원에게는 200주, CL 3~4 직원에게는 300주씩을 지급하기로 이달 중 확정하고, 3년 뒤 주가 상승폭에 따라 지급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균등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장기 인센티브 제도 도입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인재 확보와 임직원 보상을 주가와 연동시켜 회사와 임직원이 공동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주가 부양으로 이어져 주주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서울 전역 부동산 규제지역 예고

정부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추가 대출 규제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등 한강벨트 인근 아파트 대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내일(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될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서울 25개 전 자치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中,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 제재 표 증시 패닉, 환율 1430원 돌파

트럼프 관세에 시진핑 보복 악순환
코스피·닛케이 급락... 금값 최고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기싸움이 아시아 증시를 패닉(공포)으로 몰아넣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 부사장 A씨)

14일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였다.

이날 아시아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섰다. 장 초반 364.77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코스피는 전장보다 0.63% 내린 3561.81로 장을 마쳤다. 일본 닛케이는 2.58% 떨어졌고, 대만 가권지수는 0.48% 내렸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0.62% 하락했다.

전날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다지만, 원·달러 환율은 이날도 5.2원 오른 1431.0원에 중간거래를 마쳤다.

안전자산 가격은 급등했다. 13일(미동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현물 가격은 한때 4131.29달러까지 치솟았다. 장중 사상 최고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한화오션과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시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5곳이다.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조사를 지원하고 지지해 자신들의 주권·안보와 발전 이익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중국 내 조작·개인과 거래·협력 등 활동이 금지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항만세(입항수수료)에 대한 보복조치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연초부터 예고했던 중국산 선박 항만세 부과를 이날 시작했다. 이에 중국도 이날부터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며 맞대응했다.

한화오션은 자회사의 제재 소식에 5.76% 하락한 10만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하은 기자 godhe@

LG전자, 인도 상장... ‘글로벌 사우스’ 전략 가속

공모가 최상단·54배 경쟁률 기록
재무 건전성 강화·미래동력 확보

LG전자 인도법인인 인도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세계 1위 인구대국인 인도에서 국민 기업이 되고 인도 경제성장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LG전자는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NSE)에서 인도법인 상장 및 미래비전 발표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인도법인 발행주식의 15%에 해당하는 1억 181만 5859주를 구주매출로 처분했다. LG전자 인도법인의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주당 1140루피(한화 약 1만8000원)로 책정됐다.

주식배정청약에는 인도 IPO 시장에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려 공모 주식수의 54배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현지 투자자들의 지대한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에서 14일(현지시간) 열린 LG전자 인도법인 상장식에 참석한 LG전자 조주완 CEO. /LG전자

관심을 받았다. 공모가 기준 LG전자 인도법인은 12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

LG전자는 인도 자본시장에서 1조 8000억원 규모 현금을 국내로 조달한다. 금융비용, 차입금비용 등 영향없이

대규모 현금이 유입돼 재무건전성이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된다. LG전자는 조달자금을 미래성장 투자에 폭넓게 활용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장을 통해 LG전자 인도법인이 진정한 의미의 현지화 기업으로 거듭나는 만큼 인도시장에서의 성장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인도 가구 가운데 연평균수입 6000달러~3만 6000달러 구간 중소득 가구 비중은 지난 2020년 29%에서 오는 2030년 4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조주완 LG전자CEO는 “이번 상장으로 인도는 LG전자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점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LG전자와 인도법인 성장을 동시에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李 檢·경 거남 “국감서 거짓말 허용말아야... 위증 왜 수사안하나”
▲나경원 “민주당, 대법원장 질의 대상으로 삼아 삼권분립 근간 허물어” /사진 뉴시스

▲김성태 “국회의원 4개월 최혁진이 조희대 모멸... 정치 한참 잘못 배워”
▲김민수 “당심이 곧 민심... 맞지 않으면 당 떠나 중도정당 창당해야”

▲한동훈 “李대통령, 벌써 모양빠지게 도망가네요“ 마약수사 지시 또 직격
▲진영승 합참의장 “12·3 불법 비상계엄 가담은 내란... 국민께 사죄드린다”